평생 잊지못할 감동이 있는 골프장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예약 : www.hpdynasty.co.kr 080)320-7700

# ‘괴물 맞대결’… 신인왕 후보가 사이영상 후보 이겼다

〈류현진〉 〈맷 하비〉

# Ryu 12승

## 뉴욕 메츠 상대 7이닝 3K 1실점

## 내셔널 신인 최다승 투수로 우뚝

**류현진의 여유** 미국 프로야구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투수 류현진이 13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뉴욕 메츠와의 경기에서 5회에 상대 오마르 퀸타니야가 친 땅볼을 잡아 1루로 던져 아웃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좌완 류현진(26·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맷 하비(24)와의 ‘괴물 어깨’ 대결에서 판정승을 거두며 시즌 6연승과 더불어 12승(3패) 달성에 성공했다.

류현진은 14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다저스타디움에서 벌어진 미국프로야구 뉴욕 메츠와의 홈경기에서 선발 등판, 7이닝 동안 홈런 1개 포함 안타 5개를 맞고 볼넷 1개를 줘 1실점했다.

그러나 사이영상 후보로 거론되는 우완 강속구 투수 하비를 상대로 타선이 4점을 뽑은 덕분에 4-1로 앞선 8회 타석에서 승리요건을 안은 채 디 고든으로 교체됐다.

경기가 4-2 승리로 끝나면서 류현진은 12승째를 수확하고 팀 내 최다승이자 내셔널리그(NL) 신인 최다승 투수로 우뚝 올라섰다. 7연승의 신바람을 낸 다저스는 69승 50패로 리그 서부지구 선두를 굳건히 지켰다.

삼진 3개를 솎아낸 류현진은 병살타 1개를 추가해 시즌 병살타 유도 횟수에서 리그 3위(21개)를 유지했다.

후안 라가레스에게 일격을 맞아 1점을 줬으나 추가로 점수를 허용하지 않아 평균자책점을 2.99에서 2.91로 낮췄다.

류현진은 홈에서 등판한 11경기를 모두 퀄리티스타트로 장식하고 홈 강세를 이어갔다. 홈에서 6승 1패, 평균자책점 1.78을 기록하고 있다.

타석에서는 2타수 무안타에 그치며 시즌 타율이 0.214에서 0.205로 내려갔다.

다저스 타선은 전날까지 후반기 4경기에서 0점대 평균자책점으로 리그 2위(2.09)에 올라 있던 하비를 상대로 4득점, 류현진의 어깨에 힘을 실어줬다. 시속 160㎞에 육박하는 광속구를 던진 하비는 6이닝 동안 안타 8개와 볼넷 2개를 주고 4실점한 뒤 류현진보다 먼저 강판됐다.

류현진은 1회 1사에서 2번 후안 라가레스에게 몸쪽 슬라이더를 던졌다가 왼쪽 펜스를 살짝 넘어가는 홈런을 허용했다. 시즌 12번째 피홈런. 후속 대니얼 머피에게 좌전 안타를 맞아 잠시 흔들렸으나 4번 말론 버드를 3루수 병살타로 요리하고 이닝을 마쳤다.

3회까지 삼진 3개를 솎아내며 호투를 펼친 류현진은 4회 1사 후 버드와 조시 새틴에게 연속안타를 1,2루 위기를 맞았지만 저스틴 터너와 존벅을 우익수 뜬공과 유격수 땅볼로 잡고 추가 실점을 피했다.

5회까지 병살타 3개로 스스로 발목을 잡은 다저스 타선은 0-1로 끌려가던 5회 전세를 뒤집었다. A.J 엘리스의 볼넷과 후안 우리베의 안타로 1사 1·3루, 닉 푼토가 좌선상 안쪽에 떨어지는 안타를 날려 두 명의 주자를 모두 홈에 불러들였다. 6회 2사 2·3루에서는 엘리스가 2타점 좌전 적시타로 점수를 4-1로 벌렸다.

류현진은 “1회 점수를 준 뒤 추가 실점을 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집중력 있게 던졌다”고 승리의 원동력을 설명했다.

류현진은 “이겨서 너무 기분이 좋다. 조금 더 집중력을 발휘한 덕분에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다”며 “(승률 1위 사실을) 전혀 몰랐다. 시즌 중이라 신경 쓰지 않고 늘 팀이 이렇게 이길 수 있도록 좋은 투구를 보이는 게 내 몫”이라고 밝혔다. 시속 160㎞에 육박하는 하비의 빠른 볼을 타석에서 체험한 류현진은 “정말 빨랐다”고 소감을 밝혔다. /연합뉴스

# Choo 결승타

## 연장 11회 2타점 적시타

## 신시내티 승리 이끌어

미국프로야구 신시내티 레즈의 추신수(31)가 연장 11회에 결승타점을 터뜨리며 팀 승리를 이끌었다.

추신수는 14일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리글리필드에서 계속된 미국프로야구 시카고 컵스와의 방문경기에서 1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전, 4-4로 팽팽히 맞서던 연장 11회 무사 만루에서 2타점 적시타를 쳐 승리 수훈갑이 됐다.

추신수는 11회 상대 6번째 투수 에두아르도 산체스의 초구 높게 뜬 포심 패스트볼을 쳐 우전 안타로 연결, 주자 두 명을 홈으로 불러들였다.

1회 첫 타석에서 볼넷으로 걸어나가 득점을 쌓았던 추신수는 이후부터는 삼진 두 개에 범타로 물러나 무안타로 경기를 마치는 듯했다.

하지만 4-3으로 앞서던 7회 팀 선발 투수 호머 베일리가 동점 홈런을 맞아 승부가 연장으로 이어지면서 추신수는 한 차례 더 타격 기회를 잡았다. 이날 5타수 1안타를 기록한 추신수의 시즌 타율은 0.274에서 0.273으로 약간 떨어졌다. 신시내티는 추신수의 타점 덕분에 연장 11회 6-4로 이겼다. /연합뉴스

# KIA타순은 아직도 시험중?

## 1·2번→ 6·7번 오락가락 타순

## 라인업 급변에 ‘헛방망이질’

## 전략 부재에 팀 ‘끝없는 추락’

올 시즌 KIA의 야구를 대변하는 말은 ‘예측불허’이다.

멘탈 스포츠 야구지만 극적인 승리로 반전을 예고하고도 번번이 그 분위기를 이어가는데 실패했다. 평균자책점 8위(4.87)의 마운드와 상승 효과와 꾸준함이 없는 타선에 1위에서 7위까지 천국과 지옥을 경험했다.

‘예측불허’의 일희일비는 순위싸움이 본격화된 후반기에도 계속됐다.

소사가 2이닝 6실점으로 무너지면서 7월25일 후반기 첫 경기에서 LG에 패배를 기록한 KIA는 다음 날 16개의 안타를 몰아치며 7-4, 후반기 첫 승을 장식했다.

LG와의 3연전 마지막 선발은 에이스 윤석민. 부활투를 선보인 윤석민이 선발로 나선데다 전날 화끈한 타격으로 분위기를 띄어놓은 만큼 KIA의 우위가 점쳐진 경기였다. 하지만 여름 부진에 빠진 최희섭이 2번 타자로 깜짝 등장한 이날 윤석민은 생애 두 번째 완투패를 당했다.

신생팀 NC에게 연장전 끝내기 패를 당하며 충격에 빠졌던 8월9일. 안치홍의 투런포, 서재응의 7이닝 1실점 피칭, 윤석민의 첫 세이브라는 극적인 요소를 묶어 기대하지 않았던 승리를 챙겼다.

삼성전 연패를 끊을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안방으로 돌아왔지만 김진우의 초반 난조 속에 채 하루도 상승세를 잇지 못했다. 여기에 3번 신종길, 9번 이홍구를 제외하고 모두 자리가 바뀐 타순이 집중력을 발휘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7회 뒤늦게 4점을 냈지만 이걸로 끝이었다. 4-10패.

절망적인 상황에서 맞은 지난 11일 올드 유니폼데이. ‘KIA 킬러’ 윤성환의 등판, 김주찬의 부상으로 어려운 경기가 예상됐지만 안치홍과 이범호의 홈런과 모처럼 발휘된 집중력 있는 승부에 삼성이 스스로 무너지면서 KIA가 긴 연패를 끊어냈다.

이번만큼은 그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4번 나지완을 제외하고 전부 자리가 바뀐 타순으로 승부에 나선 13일 SK와의 경기. 1회 1사 만루에서 나온 김상현의 호수비와 양현종의 부진 속에 KIA는 7위로 내려앉았다.

투·타의 엇박자 속에 KIA 타자들은 시즌 내내 시험가동 되고 있다. 컨디션과 상대투수의 성향에 따라 어느 정도 라인업의 변화는 불가피 하지만 그 변화의 폭이 너무 크다. 주축 선수들의 부상과 부진을 고려해도 안정감 없는 타선 운용이다.

4번 나지완이 그나마 가장 높은 고정율을 보이고 있지만 분위기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타순은 매일같이 변하고 있다. KIA의 테이블세터와 클린업 트리오를 딱히 언급할 수 없을 정도다. 매일 같은 변화에 선수들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신종길과 김선빈의 타순은 변화무쌍하다. 신종길은 올 시즌 스타팅으로 1·2·3·6·7·9번으로 나섰다. 김선빈도 1·2번과 6·7·9번을 오락가락하고 있다.

타순은 매일같이 변했지만 과감한 기용은 오히려 부족했다. 이용규가 어깨 부상으로 지명타자로 나서면서 공·수의 전력을 최대화 하지 못했다. 나지완의 과부화는 타격 하락으로 연결되는 등 악순환이 이어졌다. 이용규가 14일 1번 타자 겸 중견수로 출전 하면서 숨통이 틔이게 됐지만 사후약방문이다.

선동열 감독은 올 시즌 타격 전반적인 부분을 타격코치에게 맡겼다. 타격의 전문성을 살리고 마운드에 집중하겠다는 의미였지만 결과는 투·타 모두 참담하다. 큰 틀에서 팀을 보고 조율하는, 운영의 묘가 아쉬운 시즌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